

## 아파트 거주자의 위생생활 행위 실태분석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욕실의 갯수와 형태는 가족수가 많고 평수가 크며 연령이 많을수록 욕실 2개를 더 원하고, 가족공용 1개인 경우 변기를 분리한 분리형을 원했으며, 가족공용 1개와 부부전용 1개 및 손님전용 1개로 2개의 욕실을 원하는 경우 가족공용은 변기나 욕조를 분리한 분리형을, 부부전용은 통합형 또는 조합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말 연세대학교 대학원 주생활학과 조명은씨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아파트 거주자의 위생생활행위 실태분석]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아파트의 20~49평에 거주하는 주부 2백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의 생리위생행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목욕습관은 연령이 많을수록 대중목욕탕을 더 자주 이용하였다.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이유는 몸을 푹 담고 때를 밀거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해야만 목욕을 한 것 같다는 우리나라 사람만의 독특한 목욕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런 의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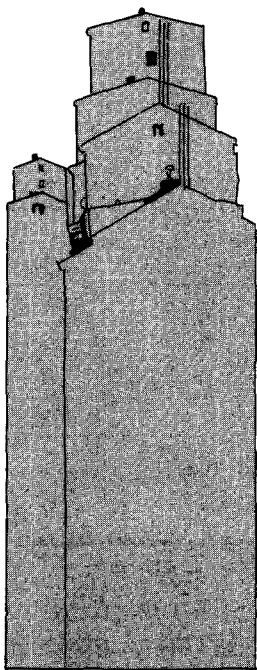
세수하기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서서 세면대를 이용하였고, 머리감기는 하루 1번으로 샤워할때 같이 감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욕조 밖에서 감는 경우와 대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발씻기는 하루 1번, 샤워할때 같이 씻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배변할때 책이나 신문을 보았으며 남편은 욕실 내에서 담배도 함께 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워하기는 하루 1번하며 욕조 안에서 샤워를 하는 서양인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조 밖에서 많이 하였다.

목욕하기는 1주 1번이 가장 많았으며 욕조 안 뿐만아니라 욕조 밖



본고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주생활학과 조명은씨가 「아파트 거주자의 위생생활행위 실태분석」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으로 연구대상은 서울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1970년대부터 1990년 이후까지 건설된 아파트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의 대상범위는 서울시 아파트 거주자들로 계층은 저소득층과 상류계층을 제외한 중류층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아파트 평수를 20평에서 49평까지로 제한했다.

의 공간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부인은 남편보다 몸담그기를 더 많이 하였으며 비누질과 때밀기는 욕조 밖에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때밀기는 남편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들의 사용시간과 중복률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가구 중 20평대는 욕실의 갯수가 가족공용 1개로서 통합형의 형태였다. 30평대는 가족 공용 1개인 통합형의 형태였으나 1985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 부부 전용 욕실이 생겨나면서 욕실의 갯수가 2개가 되었고 그 형태는 주로 조합형의 형태였다.

40평대는 가족공용 1개, 부부전용 1개로 욕실의 갯수가 2개이며 가족공용, 부부전용 모두 통합형의 형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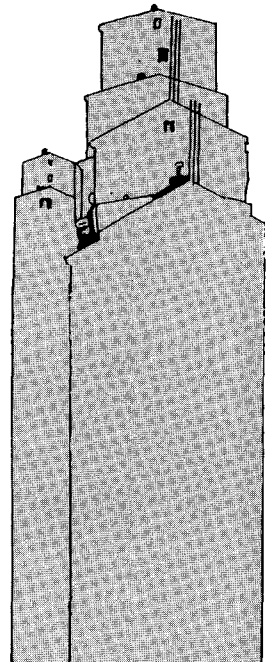
욕조와 변기, 세면대가 함께 있는 통합형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자의 81.3%가 욕실분리를 원하고 있었고, 연령이 높고 가족수가 많으며 평수가 클수록 욕실분리를 선호하였다.

욕실의 갯수가 1개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가족수 및 주택규모 때문이었으며, 욕실이 2개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식구들과의 사용시간이 겹쳐 출근시 지장을 주거나 생활상의 편리함을 위해서였다.

현재 욕실공간은 생리 위생기능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외 미용기능인 머리드라이, 화장, 가사 작업기능인 세탁, 휴식건강기능인 사우나나 간단한 운동이 행하여지고 있다.

미래의 욕실기능으로는 기본적인 생리·위생기능 외에도 미용기능과 휴식·건강관리 기능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또한 식물재배와 같이 미와 개성표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하였다.

본지는 설비인 여러분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 연구논문을 요약·정리하여 게재한다. [편집자 주]



## I. 연구배경

위생행위는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나 생활양식, 기후에 따라 의식이나 방법이 다를 뿐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각시대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럽에서의 목욕행위는 즐긴다는 표현과 함께 휴식의 일부로 생각되었으나 아시아권에서 목욕이란 의례적 의미로 해석되어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등지에서는 중요한 의례나 행사를 앞두고 목욕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목욕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랐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 목욕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서양인들은 욕조 안에서 목욕행위를 끝내며 욕실바닥으로 물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뜨겁고 깊은 욕조에서 오랜 시간동안 몸을 담근후 욕조 밖에서 몸을 씻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각 문화권마다 위생행위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위생문화를 고려하지 않은채 서구식 욕실공간이 그대로 도입되어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위생생활행위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욕실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아파트에 설계되어 있는 욕실공간은 서구식의 욕실공간으로 욕조, 세면기, 좌변기 등이 한 공간안에 집약되어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1962년 마포 아파트 건설시 처음으로 도입된 후 아파트 건설의 증가와 함께 널리 보급되어 우리나라 아파트 욕실공간의 보편적인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욕실공간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생생활행위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아파트 거주자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다.

현재 아파트 욕실공간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현재 아파트의 욕실공간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생생활과는 맞지 않는다.

2. 욕실이 획일화 되어 있어 기능상 불편하다. 즉, 거주자 특성에 맞는 화장실 타입의 변환이 없다.

이와 같은 면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만의 위생생활행위가 존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현재 아파트 거주자들의 위생행위와 욕실의 형태 및 사용용도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여 거주자들에게 적합한 욕실공간을 계획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연구의 범위

연구 대상은 서울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1970년대부터 1990년 이후까지 건설된 아파트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의 대상범위는 서울시 아파트 거주자들로 계층은 저소득층과 상류계층을 제외한 중류층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아파트 평수를 20평에서 49평까지로 제한하였다.

## III. 문헌고찰

### 1. 위생생활의 변천

우리민족의 위생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이후 각 시대별 위생공간의 특성과 위생행위의 특성을 살펴본다. 시대는 조선시대, 개화기 및 일제시대, 해방후 1970년대까지로 나눈다.

#### 1)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신분 계급에 의해 각 계층마다 위생공간의 특성과 위생행위의 특성에 차이가 났다. 각 계층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sup>

1) 윤복자(1992)는 신분계층이 명확했던 조선시대에 신분제도에 의한 사회계층에 따라 상류주택, 중류주택, 서민주택으로 주택계층을 분류하였다.

현직 양반과 양반에 임용될 자격을 갖춘 신분계층인 상류층이 거주하던 상류주택은 남녀공간을 엄격히 구분하였고, 변소도 여성 전용의 안변소(內側)와 남성 전용의 바깥변소(外側)를 두었다. 바깥변소는 주인과 손님이 쓰는 사랑변소와 머슴변소로 구분하여 2개를 설치하기도 했다. 위치는 안변소인 경우 주로 안채에서 떨어진 곳에 세웠으며, 머슴변소는 대문 밖에 두기도 하였다.

변소를 세울때에는 바닥에서 1m가량의 높이에 변소바닥을 만들고 널벽 간막이를 둘렀으며 전면에는 문을 달지 않는 대신 반간 넓이의 널벽을 세워 밖에서 보이지 않게 했다. 일부 상류주택에서는 두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큰 규모로 짓기도 했다.

측간 바닥에는 쌀겨를 두어 용변을 본 후에는 쌀겨를 뿌려 덮었으며, 외측 옆에는 남자 소변용 변기의 역할을 하는 깨진독이나 구유통을 두어서 소변을 따로 모았다. 분노가 차면 동거노(同居奴)나 외거노(外居奴)가 교외의 논에 저다 버렸는데,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대소변을 나르는 거름지게, 오줌통, 장군(분뇨를 담은 통), 개똥삼대기 등 운반용구가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또한 야밤에는 멀리 떨어진 변소를 사용하지 않고 요강을 사용하였고, 남자들은 외부에 출타할 때 길요강이라는 조그만 요강을 가지고 다녔다.

상류주택에서는 후원을 이용하여 뒷산으로부터 흙통으로 물을 끌어들여 산천수를 받아 목욕하는 목간장소를 두어 목욕을 하기도 하였으며, 웅기로 된 솥에 물을 데워서 광이나 부엌, 또는 밤에 뒷마당에서 목욕하였다.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여인들이 목욕을 하거나 뒷물을 할 수 있는 복수간이라는 공간을 부엌 후면에 두었는데 그속에서 대야에 물을 받아 사용하였다. 우물이 있는 경우는 우물가에서도 목욕하였는데, 우물가에 창포를 심어 단오날에 창포를 뽑아 그것을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다.

상류주택에서는 세면행위를 위한 특별한 공간이 없었으며, 주로 실내에 하였다. 방으로 하인이 양치질을 하기 위한 대야와 세면을 하기 위한 대야를 가져오면 씻고 다시 내보내었다. 양치기 대야에는 양치할 물을 담은 그릇과 빨는 그릇, 그릇을 받치는 대야 모양의 그릇으로 이루어졌다. 대야는 용도별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세숫대야, 발씻는 대야, 손씻는 대야, 뒷물 대야등이 있어 각기 따로 물을 떠 놓았다. 비누는 팔을 날로 꺾 데기를 벗겨 땀돌에 곱게 갈라 손바닥에 묻혀 씻으면 세수비누 대용이 되었다.

중인 계급과 이들보다 한계급 낮은 군교, 서리가 살던 중류주택에서도 남녀 구별에 의한 공간분화가 이루어져서 여성전용의 안변소와 남성전용의 바깥변소가 생겨났다. 목욕을 위한 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적당한 장소에서 이동식 욕조라고 할 수 있는 함지나 웅기에 물을 담아 놓고 목욕을 하였으며, 그외 간단한 세면은 마당에서 행하였다.

농공상에 종사하고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지는 계층인 일반평민들은 신분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빈곤하여 주택도 다른 계층보다 빈약하였다. 이들이 거주하는 서민주택에서는 변소를 주로 마당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허술하게 두었으며, 농가주택인 경우에는 밭가운데 두기도 하였다. 이들 변소는 대개 바닥으로부터 1m가량의 높이에 변소바닥을 만들고 2개의 디딤돌을 설치하여 이것을 딛고 올라서서 용변을 보았다. 벽은 널쪽을 비스듬히, 세웠으며 문을 달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지붕이 없고 구석에 울타리를 적당히 둘러친 형태도 있었으며, 변소가 아예 없는 주택은 다른 집의 변소를 사용하거나 한대를 뒷간으로 이용하였다.

서민들은 여름에는 강에서 목욕을 하였으며, 겨울에는 가마솥에 물을 끓여 함지목 대

야를 사용하여 방에서 하였다. 여름의 목욕은 유월 유두날부터 시작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하는 천욕풍습에 따라 마을마다 개울에서 이루어졌다.

목욕은 조선시대 이전에는 냇물에서 벌거벗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새벽과 저녁에 하루 두번 목욕했다는 기록도 있으나,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유교 사상때문에 목욕의 풍습이 많이 줄어들어 등매나 뒷물등의 부분욕을 주로 하였다.

2) 개화기 및 일제시대

개화기<sup>2)</sup>를 계기로 한국에 들어온 일인들이 규방부녀가 목욕하는 것을 숨어서 엿보는 행위가 성행하자 상당한 부를 축적한 개화된 중류계급에서는 조상 섬기는 일보다 규수들의 목욕간 설치가 더 긴박해져서 사당을 목욕간으로 개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일부 중류계급의 주택에서만 일어났다.

개화이후 형식적으로는 신분제도가 사라졌지만, 조선시대 계층에 따라 구분되었던 위생행위는 그대로 지속되었다. 그 한 예로 양반가에서는 세면이나 양치질이 계속 방안에서 이루어졌고 여전히 하인이 물심부름을 하였으며, 서민층에서는 마당에서 세면과 등매등의 위생행위가 이루어졌다.

일제시대 주택은 사용계층에 따라 상류계층이 거주하던 문화주택, 중류계층의 개량한옥, 하류계층의 영단주택으로 나눌수 있다. 문화주택은<sup>3)</sup> 건축가들이 신문화를 도입하여 생활개선을 위해 주도한 주택으로서 그 수요계층이 대개 개화사상을 수용한 상류계층이었다. 이들 주택은 주로 집중식 평면으로서 식당, 욕실, 변소 등의 시설을 내부에 계획하였다. 그러나 수세식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소가 실내로 유입함으로서 악취와 위생문제를 일으켰다. 중류계층의 대표적인 주택유형인 개량한옥은 전래민가의 평면을 답습했기 때문에 변소를 행랑채 끝이

나 대문 옆에 두었다.

조선주택영단이 주택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한 5종(갑,을,병,정,무)의 주택 가운데 갑(20평), 을(15평)형의 주택은 주로 일본관리나 직원들을 위한 것으로서 목욕실, 탈의실, 소변기, 대변기로 분리된 생리위생공간을 주택내에 두었다. 변소의 저장소는 콘크리트로 하였으며, 목욕실은 팽이형의 철제가마솔 밑에 직접 불을 넣고 나무판을 깔아 밟고 목욕을 하도록 했다. 한국인 서민과 근로자가 입주한 병(10평), 정(8평), 무(6평)형의 주택 가운데 병형에만 목욕실과 변소공간을 현관에 배치하였으며, 정·무형 주택에는 변소만을 현관 옆에 배치하였다. 이들 주택에 목욕실이 없는 대신 50호 단위로 공동목욕탕을 설치하게 하여 1941년 최초로 대중목욕탕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변소를 실내에 둔 경우에는 시설·설비의 뒷받침이 없어 악취등의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변소를 본체에서 분리하거나 붙어 있는 경우에도 출입은 밖에서 하도록 개선하였다.

3) 해방 후 1970년 까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우리의 생활양식은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으며, 6·25 동란과 전후 복구라는 혼란기를 거치면서 막대한 양의 주택을 손실함으로서 주택사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해방후 1970년까지의 위생공간의 변천은 공영주택과 민간주택<sup>4)</sup>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해방후 공영주택에서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좁기 때문에 목욕실은 설치되고 있지 않은데 반해 변소는 대부분 본체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개량되지 않은 변소는 위생상 매우 불

2) 개화의 싹점은 1876년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된 때로 이때를 계기로 신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3) 문화주택은 건축가에 의해 공급되었으며, 개량한옥은 민간공급업자에 의해, 영단주택은 조선주택영단에 의해 공급되었다.

결하여 출입은 외부에서 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내부출입의 경우에도 소변소 등의 전실을 통해 출입하도록 하여 직접 출입을 피하도록 하였다. 60년대에 공영주택은 이전과는 달리 목욕실이 설치되었다. 초기에 목욕실은 부엌의 종속실로서 부엌을 통하여 출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변소가 목욕실에 인접하고 점차 마루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단계를 거쳐 변소가 목욕실 내부로 통합되었다. 또한 좌식 양변기를 사용함으로써 현대적인 욕실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 공영주택은 목욕실과 화장실이 일실화되었고, 위생설비가 점차 발달하였다. 즉 양변기가 일반화되고 구조가 수세식으로 발전됨에 따라 변소와 목욕실이 일실화되어 분리된 경우보다 적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결과 배변, 세면, 목욕 등의 위생행위가 모두 주택내 욕실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민간주택은 공영주택과 비교해 볼때 새롭고 혁신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다. 해방직후 민간주택에서는 변소를 마당 한 구석에 두거나 대지가 협소할 때에는 본체에 붙여 달아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출입은 외부에서 하게 하여 본채와 분리시켰다. 목욕실은 소규모의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이 갖고 있었으나 특징적인 발전은 없었다. 1960년대 민간주택에서는 온수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부엌에 부속되는 세면실이 생겨났으며, 세면행위는 실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변소에 대한 보수성은 매우 강해서 공영주택과는 달리 변소는 대문옆에 좁은 면적으로 계획하였다. 변소 안쪽으로 인접해 있는 광이라 불리우는 곳을 겨울에는 김치광으로,

여름에는 샤워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1970년대 민간주택에서는 수세식 설비가 보편화되면서 이전의 세면실이 외부의 변소와 통합되어 현대적인 욕실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때 위생행위는 전 시대와 큰 변화는 없었으나, 위생행위를 위한 공간이 주택내 새로 생기거나 실내로 통합되었다. 세면행위는 주택내 설치되기 시작한 세면실에서 이루어졌고, 목욕행위는 광이나 부엌 또는 집의 뒷마당에서 하던 것이 목욕실의 설치로 인하여 점차 실내에서 행하게 되었다.

개화기 이전의 우리민족은 측간이라는 곳에서 용변을 보았으며, 목욕을 위한 공간은 상류층이나 궁궐에만 드물게 계획되었을 뿐 특별한 공간이 없어 큰 함지나 웅기에 물을 떠서 적당한 장소에서 목욕을 하였다. 즉 위생행위가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를 위한 공간이 주택내 계획되어지지 않았다. 욕실공간이 주택내부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 이후부터이며, 이 과정에서 변소공간은 목욕실, 세면실과 통합되었다. 1970년대 이후 수세식 시설의 보급과 설비의 발달로 주택내의 욕실은 대부분 세면기, 변기, 샤워기, 욕조, 거울, 소도구, 수납장등을 갖추게 되었으며, 욕실은 주택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위생공간이 현재의 욕실과 같은 형태와 기능을 갖추게 되는 변천과정에서 우리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등이 고려되지 않고 서구의 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거주자에게 서구식 생활양식을 강요하게 되었다.

## 2. 현대 주택의 욕실공간

현대 주택의 욕실공간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욕실의 기능, 욕실의 형태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1) 욕실의 기능

일반적으로 욕실은 세면, 목욕, 배변등 욕

4) 공영주택은 해방후 건설·분양된 대한주택공사의 공사주택,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의 용자주택을 말한다. 민간주택은 서민계층이 거주하는주택으로 민간업자에 의해 건설·공급된 주택을 말한다.

실공간 본래의 기능인 생리위생(生理衛生)기능을 하는 곳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욕실의 기능이 단순히 생리위생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휴식과 더불어 신문이나 책을 보거나 사색을 하는 등의 복합적이고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그에 따른 주택내 공간의 기능이 가족의 휴식과 오락 등 에너지 재생산을 위한 장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택내 욕실공간의 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다.

(1) 생리위생기능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욕실의 기능으로서<sup>5)</sup>, 인체의 청결유지와 배설이 그 목적이다. 생리위생행위로는 세수하기, 머리감기, 배변하기, 목욕하기, 샤워하기 등이 있다. 인간은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노폐물을 배출하며, 이를 처리하고 인체의 쾌적성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욕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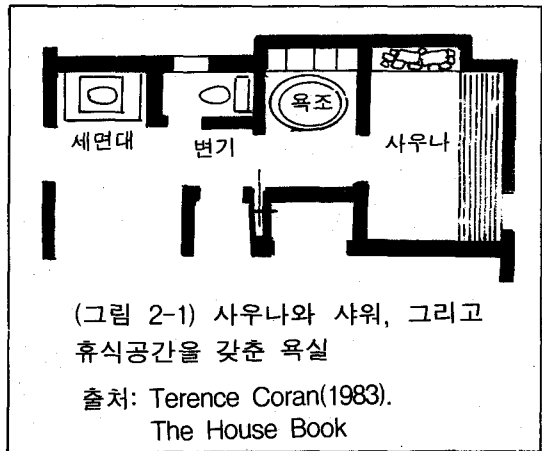
(2) 가사작업기능

주택의 면적이 협소하여 다용도실을 들 수 없는 경우, 대부분 욕실에서 가사작업행위를 한다. 홍진수(1987)는 우리나라의 소규모 주택이나 아파트의 욕실에서 욕실 본래의 기능인 생리위생기능외에도 세탁이나 비일상적인 가사작업이 많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욕실공간의 비품을 조사해 보면 빨래판, 빨래비누, 세탁용 고무장갑등이 있으며, 특히 세탁기가 설치된 경우가 많다. 탁순애(1990)는 소규모 아파트 거주자들이 욕조를 야채씻기나 배추절이기등 김장시 이용한다고 하였다. 주택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러한 가사작업기능은 줄어드는 반면, 소규모

주택에서의 가사작업기능은 욕실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다.

(3) 휴식·건강관리기능

욕실에서 목욕이나 샤워를 함으로서 피로를 풀거나, 책이나 신문을 보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능이다. 목욕을 함으로서 기분을 전환하거나, 생활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최근 산업사회로 발전해 갈수록 현대인들은 남의 방해받지 않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욕실은 이러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주택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외국의 경우 적극적인 건강관리공간으로 욕실을 활용하기 위해 사우나를 설치하거나(그림 2-1), 욕실옆에 운동기구를 둘 수 있는 조그만 운동실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다.



(4) 미용기능

욕실을 머리손질이나 드라이, 화장등 간단한 몸치장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 최형선(1987)은 세면이나 목욕행위 전후에 수반되는 미용행위에 대한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욕실의 면적이 증가할 경우 적절한 수납공간의 확보는 욕실내 미용기능의 역할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윤복자(1989)는 욕실기능에 대한 욕구와 사회경제적인 특성인 사회계층과의 관계를

5) 이현주(1984)는 서울지역 민영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욕실의 91.9%가 생리·위생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설명하였다. 계층이 높을수록 욕실이 생리 위생기능과 더불어 휴식·건강관리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욕실공간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밝혔다. 서동연(1990)은 현재 욕실의 사용용도를 조사한 결과 세탁용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욕실의 기능을 가사작업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많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즉 공간의 협소등의 이유로 가사작업을 욕실에서 하기는 하지만, 가사작업행위가 욕실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들을 고려해 볼때 욕실의 여러 기능 중 생리위생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해결가능해야 하며, 휴식·건강관리 기능과 미용기능등에 대한 요구는 점차 그 요구가 증가 되고 있다. 반면 가사작업기능은 거주자들이 점차 지양하고 있는 욕실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 3) 욕실의 형태

경제기획원에서 조사·보고하는 '주택 및 인구 조사'에서는 욕실공간을 목욕실(bathroom)과 화장실(toilet)로 구분하였으나, 욕실은 그 사용자나 설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구분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욕실에 대한 연구에서 욕실의 형태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정경숙(1987)은 변기만 있는 공간은 변소, 세면대만 있는 공간은 세면실, 욕조만 있는 공간은 목욕실, 변기와 세면대가 함께 있는 공간은 화장실, 욕조, 세면기, 변기가 함께 있는 공간은 욕실이라고 구분하였다. 이영심(1989)은 Bath unit형과 2가지 조합형, 그리고 분리형으로 구분하였는데, Bath unit는 욕조와 변기, 그리고 세면대가 한 공간에 구성되어 있는 형태이며, 2가지 조합형은 변기와 세면대, 욕조와 세면대등과 같이 3가지의 욕실설비 중 두 가지만 함께 구성되어 있는 형태이며, 분리형은 욕조, 변기, 세면대가 각각 독립되어 있

는 형태로 정의하였다. 서동연(1990)은 욕실을 1실형인 통합형과 2실형과 3실형인 분리형으로 구분하였다. 구분의 기준은 욕실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의 종류를 욕조, 세면대, 변기, 샤워기, 세탁기, 화장대의 6가지로 나누어 조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들은 욕실설비의 종류에 의해 형태를 구분한 것으로서, 욕실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욕실을 구별할 수 있다. 가족실이나 거실등의 가족단란공간 가까이 설치된 욕실은 가족공용욕실로 사용되며, 주인부부침실에 둔 욕실은 부부전용 욕실, 그리고 현관이나 계단쪽의 욕실은 손님들을 위한 손님전용 욕실로 사용된다. 그 외에 노인방 옆에 위치한 노인 전용 욕실이 있을 수 있다.

Faulkner등(1989)은 욕실공간을 powder room, family bathroom, semiprivate bathroom, private bathroom으로 구별하였다. Powder room은 방문객을 위한 세면 및 용변을 위한 공간으로서, 한 공간 내에 세면대와 변기를 함께 설치한다. 대개 주출입구(현관) 근처에 배치한다. Family bathroom은 가족공용의 욕실로서 공동 생활공간 영역에 배치한다. 세면공간, 목욕공간, 용변공간을 각각 벽으로 구분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 여러사람이 동시에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한다. Semiprivate bathroom은 개인 생활공간 영역에 위치하는 가족공용의 욕실로서 방문객이나 외부인에게는 개방되지 않는다. Private bathroom은 개인생활공간 영역 가운데 각 개인 침실에 부속된 욕실로서, 가장 사적인 특성이 강한 욕실형태이다.

욕실은 누가 사용하며,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표 3-1>과 같이 가족공용욕실, 부부전용욕실, 손님전용욕실로 구분되며, 이들 각각에 대한 형태를 <표 3-2>에서 정의한다.



<표 3-1> 욕실의 사용자와 위치에 따른 욕실의 형태

명 칭	정 의
가족공용욕실	거실이나 가족실과 같은 공동생활영역에 위치하는 가족공용욕실
부부전용욕실	부부침실에 위치한 욕실로서 가장 사적인 욕실
손님전용욕실	현관 근처에 위치한 방문객을 위한 욕실

<표 3-2> 욕실설비의 종류에 따른 욕실의 형태

정 의	정 의	정 의	정 의
통합형	욕조, 변기, 세면대가 한 공간에 있는 형태	욕조+변기+세면대	욕조+변기+세면대
조합형	욕조, 변기, 세면대 중 1가지나 2가지만 있는 형태	변기 세면대 욕조나 샤워기 욕조+변기 욕조+세면대 변기+세면대+샤워기	변기    욕조+세면대
분리형	욕조, 변기, 세면대가 모두 있으나 벽체나 간막이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형태	변기 / 욕조+세면대 욕조 / 세면대+변기 세면대 / 변기+욕조	변기/욕조+세면대

통합형은 욕조, 변기, 세면대가 한 공간에 있는 형태로 우리나라 아파트의 94%정도가 이런 통합형을 채택하고 있다. 조합형은 욕조, 변기, 세면대중 1가지나 2가지만 있는 형태로 현재 30평대의 부부전용욕실의 대부분이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필요없는 부분을 제외시킴으로서 면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한다. 분리형은 욕조, 변기, 세면대가 벽체나 간막이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서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리형에 대한 거주자들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가족구성원들간의 사용시간이 겹쳐 불편하고, 위생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Faulkner는 가족이 3인이상인 주택에서는 적어도 2개 이

상의 욕실을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지적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가 큰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부부전용욕실이 생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택 전용면적이 적으므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욕실을 분리하여 적절히 활용한다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IV. 조사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가구의 위생생활행위

<연구문제 1>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특성에 따라 위생생활행위는 어떠한가?

조사대상가구의 위생생활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목욕방식과 욕실공간내의 위생행위에 대한 빈도, 백분율 분포를 살펴보았다.

##### 1) 목욕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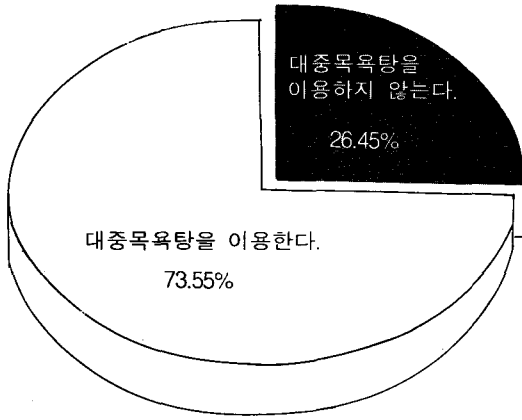
<가설 1-1> 거주자 특성에 따라 목욕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가구의 목욕방식은 목욕습관, 대중목욕탕 이용 이유, 대중목욕탕에서의 때미는 여부와 횟수로 구분하였으며, 이같은 목욕방식이 거주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목욕습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실공간에서 목욕을 할뿐만 아니라 따로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생행위에 따른 주택내 욕실공간의 이용과 대중목욕탕이용을 간단히 범주화하여, 조사대상자들의 목욕습관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들에게 4가지의 패턴 중 자신에게 속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게 하였다. <표 4-3>을 보면 조사대상 아파트의 거주자들은 패턴 B와 패턴 C를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패턴 D를 선택하였으며, 패턴 A는 거의 선택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주택내 욕실공간에서 세수하기, 머리감기, 샤워하기, 목욕하기 등을 하면서도 응답자의 73.6%가 대중목욕

(그림 4-1) 대중목욕탕 이용 여부



탕을 이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사람들의 목욕습관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목욕탕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주택내 욕실공간만을 이용하는 사람도 26.5%나 되어 서구식 목욕방식도 크게 정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4-1)

**위생행위**

- 유형1. 세수하기, 머리감기, 간단히 손발 씻기
- 유형2. 샤워하기:간단히 비누칠만 하는 경우
- 유형3. 목욕하기:때를 밀거나 욕조에 들어가 쉬는 행위

**별례**

- A. 주택내 욕실공간에서는 유형1 행위만 하며 유형2, 유형3 행위는 주로 대중목욕탕을 이용한다.
- B. 주택내 욕실공간에서는 유형1, 유형2 행위만 하며, 유형3 행위는 주로 대중목욕탕을 이용한다.
- C. 주택내 욕실공간에서 유형1, 유형2, 유형3 행위를 모두하며, 유형3 행위는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도 한다.
- D. 목욕탕을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유형1, 유형2, 유형3 행위는 주로 주택내 욕실공간에서 한다.

<표 4-3> 연령에 따른 목욕습관  $\chi^2$ 검정

N=155

목욕습관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계
	f(%)	f(%)	f(%)	f(%)	f(%)
패턴 A	0(0.00)	10(2.63)	1(1.85)	0(0.00)	2(1.29)
패턴 B	3(3.64)	6(15.78)	22(40.74)	21(51.21)	52(33.54)
패턴 C	9(40.90)	19(50.00)	21(38.88)	11(26.83)	60(38.70)
패턴 D	10(45.45)	12(31.57)	10(18.51)	9(21.95)	41(26.45)
계	22(100.00)	38(100.00)	54(100.00)	41(100.00)	155(100.00)
$\chi^2$	8.423*				

\* p<.05

가족특성인 가족수, 연령, 성별과 주거특성인 분양면적, 건축년도에 따라  $\chi^2$ 검정을 해본 결과 목욕습관은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표 4-3>를 보면 20대는 대중목욕탕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주택내 욕실공간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51.6%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주택내 욕실공간에서 세수하기, 머리감기, 샤워하기, 목욕하기 등을 하면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다. 40대나 50대인 경우는 주택내 욕실공간에서 세수하기, 머리감기, 샤워하기만을 하며, 목욕하기는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가 각각 40.7%, 51.2%로 가장 많았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대중목욕탕을 더 자주 이용하며, 연령이 적은 경우에는 욕실공간에서만 위생행위를 하거나, 특히 목욕행위만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이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내 욕실공간에서 목욕을 하면서도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 보았으며, 이에 대한 거주자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이유는 물에 몸을 푹 담고 때를 밀기 위해서가 40.3%, 사우나나 맛사지를 위해서가 37.0%, 목욕탕에서 목욕을 해야 푹 쉬면서 목욕을 한 것 같기 때문이 37.0%의 순이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욕실공간이 때를 밀기에는 충분하지

<표 4-4> 연령에 따라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의  $\chi^2$ 검정

N=155

내 용	20-29세 (%) <sup>a</sup>	30-39세 (%) <sup>b</sup>	40-49세 (%) <sup>c</sup>	50세이상 (%) <sup>d</sup>	계 (%) <sup>e</sup>	$\chi^2$
물에 몸을 꼭 담고 때를 밀기 위해서	9(40.91)	15(40.54)	27(50.00)	15(40.54)	62(40.26)	n.s
사우나나 마사지를 위해서	10(45.45)	13(35.14)	18(33.33)	16(39.02)	58(37.01)	n.s
목욕탕에서 목욕을 해야 꼭 쉬면서 목욕을 한것 같아서	3(13.64)	19(51.35)	20(37.04)	15(36.59)	57(37.01)	8.423*
목욕공간이 협소하기 때문	2(9.09)	2(5.41)		3(7.32)	7(4.55)	n.s
목욕후 뒷마무리등 청소하기 귀찮아서	29(9.09)	1(2.70)		1(2.44)	4(2.60)	n.s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므로		1(2.70)	1(1.85)	1(2.44)	3(1.95)	n.s

· 중폭응답함.

· 백분율 a는 22명, b는 38명, c는 54명, d는 41명, e는 총 155명에 대한 비율임.

\* P< .05, n.s not signific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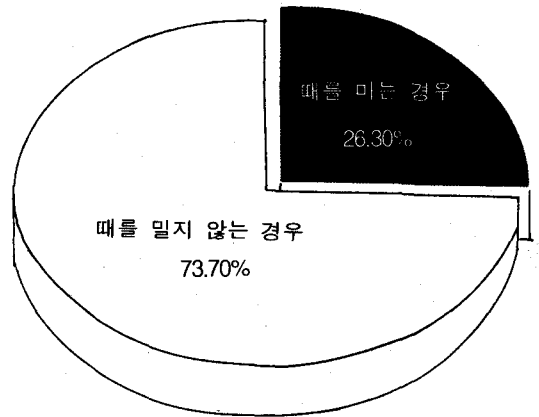
못하며, 사우나나 마사지를 위한 시설이 없고, 또한 우리나라 사람만의 독특한 목욕문화로 인하여 대중목욕탕을 이용해야 목욕을 한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특성인 가족수, 연령, 성별과 주거특성인 분양면적, 건축년도에 따라  $\chi^2$ 검정을 해본 결과 6개의 항목 가운데 목욕탕에서 목욕을 해야 꼭 쉬면서 목욕을 한 것 같기 때문이라는 문항에 대해 거주자 특성 중 연령에 대해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표 4-4>을 보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해야 꼭 쉬면서 목욕을 한 것 같기 때문에 목욕탕을 이용한다는 것이 30대인 경우 51.4%, 40대인 경우 37.0%, 50대인 경우 36.6%인 반면 20대는 13.6%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대중목욕탕을 이용해야 목욕을 한 것 같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나이가 많을수록 전통적 목욕행위에 대한 의식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3) 대중목욕탕에서 때미는 여부와 횟수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목욕탕에 전문적으로 때를 밀어주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 있다.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용여부와 횟수를 물었다. (그림 4-2)와 <표 4-5>를 보면 대중목욕탕 이용자들 중 26.3%가 전문적으로 때를 밀어주는 사람에

게 때를 밀며, 그 횟수는 1번/달이 32.4%, 1번/년과 2번/달이 각각 20.6%, 1번/주가 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전문적으로 때를 밀어주고 보수를 받는 사람에게 때를 미는지의 여부

<표 4-5> 때를 미는 횟수

N=34

횟 수	때를 미는 경우						
	1번/주	1번/달	2번/달	1번/년	2번/년	5번/년	계
	(%)	(%)	(%)	(%)	(%)	(%)	(%)
	5(14.7)	11(32.4)	7(20.6)	7(20.6)	3(8.8)	1(2.9)	34(100.0)

거주자 특성에 따른 목욕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인 <가설 1-1>를 요약하면 조사대상구의 목욕방식은 가족특성 중 연령에 따라서

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가족특성 중 가족수와 성별, 그리고 주거특성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1-1>은 부분적으로 긍정된다.  $\chi^2$ 검정결과를 요약한 것은 <표 4-6>과 같다. 연령이 많을수록 대중목욕탕을 더 자주 이용하였으며, 그 이유도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해야 목욕을 한 것 같기 때문으로 지적하였으며, 연령이 적은 사람보다 전통적 목욕행위에 대한 의식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거주자 특성과 목욕방식의  $\chi^2$ 검정 요약표

거주자 특성		목욕 방식		
		목욕습관	대중목욕탕 이용이유	때미는 여부와 횟수
가족특성	가족수	n.s	n.s	n.s
	연령	9.355*	8.423*	n.s
	성별	n.s	n.s	n.s
주거특성	분양면적	n.s	n.s	n.s
	건축년도	n.s	n.s	n.s

\* P<. 05, \*\*P<. 01, \*\*\* P<. 001, n.s not significant

2) 욕실공간 내의 위생행위

<가설 1-2> 거주자 특성에 따라 욕실공간내의 위생행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욕실공간내의 위생행위는 위생행위의 방식, 횟수, 시간 및 부부전용욕실에서 위생행위와 옷벗어 두는 장소 등을 조사하였으며, 위생행위는 욕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행위인 세수하기, 머리감기, 발씻기, 배변하기, 샤워하기, 목욕하기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욕실공간내 위생행위가 거주자 특성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위생행위의 방식

욕실내 위생행위는 세수하기, 머리감기, 발씻기, 배변하기, 샤워하기, 목욕하기 각각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하였다. 이들 각각의 위

생행위를 거주자 특성과  $\chi^2$ 검정한 결과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표 4-7>을 보면 연령에 따른  $\chi^2$ 검정결과 위생행위는 머리감기, 발씻기, 배변하기 그리고 목욕하기는 몸담그기와 때밀기에 대해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세수하기는 남편과 부인 모두 서서 세면대를 이용한 경우가 80%이상을 차지하여, 아파트 거주자들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자들보다 입식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8)</sup>. 머리감기는 남편과 부인 모두 샤워할 때 같이 감는 경우가 남편 48.5%, 부인 3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욕조 밖에 서서 샤워기를 이용한다는 순으로 남편 21.3%, 부인 26.1%였다. 남편은 서서 세면대에서 샤워기를 이용하다가 18.4%로 그 다음 순이었고, 부인은 앉아 대야를 사용하다가 18.3%로 그 다음 순이었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좌식생활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발씻기는 남편의 경우 샤워할 때 같이 하는 경우가 38.2%로 가장 높았고, 샤워기를 이용하여 욕실바닥에서 씻는다가 31.6%, 세면기에 발을 올려 놓고 서서 씻는다가 18.4%의 순이었다. 부인의 경우 샤워기를 이용해 욕실바닥에서 씻는다가 39.0%로 가장 많았고, 샤워할 때 같이 씻는다가 28.6%, 바가지로 물을 끼얹으면서 씻는다가 13.6%의 순이었다. 즉 부인이 남편보다 더 구부리고 발을 씻거나 바가지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면기에 발을 올려 놓고 서서 씻는 경우가 남편은 18.4%, 부인은 11.0%로 이러한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배변의 경우도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남편, 부인 모두 배변하면서 책이나 신문을 보는 경우가 남편 71.3%, 부인 57.8%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의 경우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13.2%나 되었다. 현재의 욕실

<표 4-7> 성별에 따른 위생행위의  $\chi^2$ 검정

N=155

행 위		성 별	성 별		$\chi^2$	
			남편 f(%)	부인 f(%)		
세 수 하기		앉아서 세숫대야를 사용한다. 서서 세면대를 이용한다.	14(10.3) 122(89.7)	20(12.9) 135(87.1)	n.s	
		소 계	136(100.0)	155(100.0)		
머 리 감 기		샤워할 때 같이 한다. 욕조 밖에 서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욕조 밖에 앉아 대야를 이용한다. 서서 세면기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대야를 적당한 장소에 올려 놓고 한다.	66(48.5) 29(21.3) 14(10.3) 25(18.4) 2( 1.5)	57(37.3) 40(26.1) 28(18.3) 20(13.1) 8( 5.2)	10.270*	
		소 계	136(100.0)	153(100.0)		
발 씻 기		샤워할 때 같이 한다. 의자나 욕실 문턱에 걸터 앉아 세숫대야에서 씻는다. 샤워기를 이용하여 욕실바닥에서 씻는다. 바가지로 물을 끼얹으면서 씻는다. 세면기에 발을 올려 놓고 서서 씻는다.	52(38.2) 10( 7.4) 43(31.6) 6( 4.4) 25(18.4)	44(28.6) 12( 7.8) 60(39.0) 21(13.6) 17(11.0)	12.442*	
		소 계	136(100.0)	154(100.0)		
배 변		배변하면서 책이나 신문을 본다. 담배를 피운다. 음악을 듣는다. 위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97(71.3) 18(13.2) 0( 0.0) 21(15.4)	89(57.8) 0( 0.0) 7( 4.5) 58(37.7)	40.656***	
		소 계	136(100.0)	154(100.0)		
샤 워 하기	비누질	욕조 안에서 한다. 욕조 밖에서 한다.	64(47.4) 71(52.6)	67(43.7) 86(56.3)	n.s	
		소 계	135(100.0)	153(100.0)		
	폼행구기	욕조 안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욕조 밖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71(52.2) 85(47.8)	73(47.4) 81(52.6)	n.s	
		소 계	136(100.0)	154(100.0)		
목 욕 하기	폼담그기	욕조 안에 담근다. 욕조 안에 담그지 않는다.	69(53.1) 61(46.9)	98(65.8) 51(34.2)	4.656*	
		소 계	130(100.0)	149(100.0)		
	비누질	욕조 안에서 한다. 욕조 밖에서 한다.	44(34.1) 85(65.9)	50(33.3) 100(66.7)	n.s	
		소 계	129(100.0)	150(100.0)		
	때밀기	욕조 안에서 한다. 욕조 밖에 앉아서 한다. 하지 않는다.	29(22.3) 51(39.2) 50(38.5)	41(27.3) 82(54.7) 27(18.0)	14.800**	
		소 계	130(100.0)	150(100.0)		
	폼행구기		욕조 안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욕조 밖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욕조에 물을 받아 퍼서 씻는다. 세면기에 물을 받아 퍼서 씻는다. 대야에 물을 받아 퍼서 씻는다.	59(45.4) 61(46.9) 6( 4.6) 3( 2.3) 1( 0.8)	66(44.0) 66(44.0) 14( 9.3) 4( 2.7) 0( 0.0)	n.s
			소 계	130(100.0)	150(100.0)	

\* P< .05, \*\*P< .01, \*\*\* P< .001, n.s not significant

공간은 책이나 신문을 보기에는 습기가 많고 어두운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표 4-8> 샤워하기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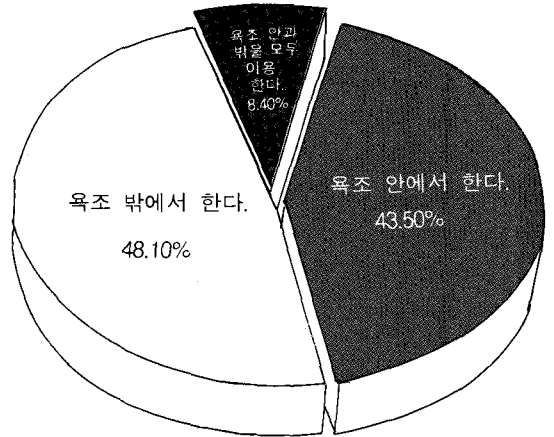
N=155

방식	성별	남편	부인
		f(%)	f(%)
1 비누질은 욕조 밖에서 하며, 몸헹구기도 욕조 밖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62 ( 45.9)	77 ( 50.3)
2 비누질은 욕조 안에서 하며, 몸헹구기도 욕조 안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61 ( 45.2)	64 ( 41.8)
3 비누질은 욕조 밖에서 하며, 몸헹구기는 욕조 안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9 ( 6.7)	9 ( 5.9)
4 비누질은 욕조 안에서 하며, 몸헹구기는 욕조 밖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3 ( 2.2)	3 ( 2.0)
계		135(100.0)	153(100.0)

샤워하기는 비누질과 몸헹구기로 나누어 물어보았으며, 이를 각각 조합한 4가지 경우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4-8>과 같다. 남편과 부인 모두 비누질과 몸헹구기를 욕조 밖에서 하는 경우와 비누질과 몸헹구기를 욕조 안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욕조밖에서 샤워를 하는 경우는 남편 45.9%, 부인 50.3%로 나타나 욕조안에서 샤워하는 서양인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조 밖에서도 샤워기를 사용하여 목욕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3)

목욕하기는 욕조 안에 몸을 담그는 경우가 남편 53.1%, 부인 65.8%로 부인이 남편보다 몸담그기를 더 많이 하였다. 이는 여자가 몸을 꼭 담그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비누질과 때밀기는 모두 욕조 밖에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때밀기의 경우 남편 39.2%, 부인 54.7%가 욕조 밖에서 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조 안보다 욕조 밖의 공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밀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남자

(그림 4-3) 샤워하기의 방식



38.5%, 여자 18.0%로, 비교적 여자가 남자보다 때밀기를 더 많이 하였다. 몸헹구기는 남편의 92.3%, 부인의 88.0%가 욕조안과 밖에서 샤워기를 이용하였다. 욕조에 물을 받아 퍼서 씻는 행위도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표 4-9> 남자의 목욕행위

N=155

방식	f	%
1 몸담그기를 하며, 비누질과 때밀기는 욕조 밖에서, 몸헹구기도 욕조 밖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18	14.0
2 몸담그기를 하며, 비누질과 때밀기는 욕조 안에서, 몸헹구기도 욕조 안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15	11.6
3 몸담그기를 하지 않으며, 비누질은 욕조 밖에서 하며, 때밀기는 하지 않으며, 몸헹구기는 욕조 밖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15	11.6
4 몸담그기를 하지 않으며, 비누질과 때밀기는 욕조 밖에서, 몸헹구기도 욕조 밖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13	10.1
5 몸담그기를 하지 않으며, 비누질은 욕조 안에서 하며, 때밀기는 하지 않으며, 몸헹구기는 욕조 안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12	9.3

목욕하기는 몸담그기, 비누질하기, 때밀기, 몸헹구기로 나누어 각각을 물어 보았는데, 이 응답을 조합한 60가지의 목욕방식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60가지 목욕방식이 고르게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목욕방식은 서구와는 달리 일률적이거나 보편적인 행위가 없으며, 사람

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조합한 60가지 목욕방식 중 비교적 빈도율이 높았던 5가지 방식을 살펴보면 <표 4-9>와 <표 4-10>과 같다.

남편, 부인 모두 몸담그기를 하며 비누질과 때밀기는 욕조 밖에서, 몸헹구기도 욕조 밖에서 샤워기를 이용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이는 대중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욕조는 몸담그기만을 위해 사용되며, 때밀기와 비누질은 욕조 밖에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은 몸담그기를 하며, 비누질과 때밀기는 욕조 안에서, 몸헹구기도 욕조 안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와 몸담그기를 하지 않으며, 비누질은 욕조 밖에서, 때밀기는 하지 않으며, 몸헹구기는 욕조 밖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가 각각 11.6%로 그 다음 순이었다. 부인은 몸담그기를 하지 않으며, 비누질과 때밀기는 욕조 밖에서, 몸헹구기도 욕조 밖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가 11.4%로 그 다음 순이며, 몸담그기를 하며, 비누질과 때밀기는 욕조 안에서, 몸헹구기도 욕조 안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가 10.7%로 그 다음 순이었다. 서구의 목욕방식과 같이 모든 목욕을 욕조 안에서 끝내는 경우는 남편 11.6%, 부인 10.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우도 때밀기는 하며,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욕조 밖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표 4-10> 여자의 목욕행위

N=155

방식		f	%
1	몸담그기를 하며, 비누질과 때밀기는 욕조 밖에서, 몸헹구기도 욕조 밖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27	18.1
2	몸담그기를 하지 않으며, 비누질과 때밀기는 욕조 밖에서, 몸헹구기도 욕조 밖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17	11.4
3	몸담그기를 하며, 비누질과 때밀기는 욕조 안에서 하며, 몸헹구기도 욕조 안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16	10.7
4	몸담그기를 하며, 비누질과 때밀기는 욕조 밖에서, 몸헹구기는 욕조 안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9	6.0
5	몸담그기를 하며, 비누질과 때밀기는 욕조밖에서 하며, 몸헹구기는 욕조에 물을 받아 퍼서 씻는다.	9	6.0

남자보다 몸담그기는 더 많이 하였으며, 비누질과 때밀기는 욕조 밖에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때밀기도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검정결과 연령에 따라서는 머리감기에 대해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표 4-11>과 같다. 어느 연령대나 샤워할 때 같이 머리를 감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대인 경우 대야를 적당한 장소에 올려놓고 머리를 감는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욕조 밖에 앉아 대야를 이용하는 행위도 7.41%에 불과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욕조밖에서 머리를 감는 경우와 대야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위생행위의 횟수

각 위생행위의 횟수를 물어본 결과는 <표 4-12>와 <표 4-13>과 같다. 거주자 특성과  $\chi^2$ 검정한 결과 거주자 특성 중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위생행위 중 세수하기, 머리감기, 샤워하기(겨울)에 대해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표 4-12>를 보면 세수하기는 하루 2번이 남편 88.3%, 부인 81.8%

<표 4-11> 연령에 따른 머리감기 방식의  $\chi^2$  검정

방식	연령				
	20-29세 f(%)	30-39세 f(%)	40-49세 f(%)	50세 이상 f(%)	계 f(%)
샤워할 때 같이 한다.	10(37.04)	30(41.10)	35(40.70)	46(45.54)	121(42.16)
욕조 밖에 서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6(22.22)	13(17.81)	24(27.91)	26(25.74)	69(24.04)
욕조 밖에 앉아 대야를 이용한다.	2( 7.41)	9(12.33)	12(13.95)	19(18.81)	42(14.63)
서서 세면기에서 샤워기를 이용한다.	9(33.33)	18(24.66)	11(12.79)	7( 6.93)	45(15.68)
대야를 적당한 장소에 올려놓고 한다.	0( 0.00)	3( 4.11)	4( 4.65)	3( 2.97)	10( 3.48)
계	27(100.00)	73(100.00)	86(100.00)	101(100.00)	287(100.00)
$\chi^2$	21.782*				

\* P < .05

<표 4-12> 성별에 따른 위생행위의 횟수에 대한  $\chi^2$ 검정

성별	남 편							부 인							$\chi^2$	
	하 루			1 주			계 (%)	하 루			1 주			계 (%)		
	1번 (%)	2번 (%)	3번 (%)	1번 (%)	2번 (%)	3번 (%)		1번 (%)	2번 (%)	3번 (%)	1번 (%)	2번 (%)	3번 (%)			
세수하기	8( 5.84)	121(88.32)	8(5.84)				137(100.00)	5( 3.25)	126(81.82)	23(14.93)				154(100.00)	8.359*	
머리감기	70(51.09)	9( 6.57)	10(7.3)		9( 6.57)	48(35.04)	137(100.00)	60(39.22)	2( 1.96)			10( 6.54)	80(52.29)	153(100.00)	11.976*	
발 씻 기	88(64.23)	43(31.39)	3(2.19)		1( 0.73)	2( 1.46)	137(100.00)	93(60.78)	53(34.64)	6( 3.92)		1( 0.65)		153(100.00)	n.s	
샤 위	여름	93(63.38)	34(25.00)	10(7.4)	1( 0.74)	2( 1.47)	5( 1.73)	136(100.00)	94(61.44)	45(29.41)	7( 4.58)	2( 1.31)		5( 3.27)	153(100.00)	n.s
	겨울	41(32.03)	12( 9.38)	2(1.56)	24(18.75)	19(14.84)	30(23.44)	128(100.00)	56(38.62)	6( 4.14)	3( 2.07)	10( 6.90)	27(18.62)	43(29.66)	145(100.00)	12.982*
목 욱	여름	31(28.18)	12(10.91)		41(37.27)	14(12.73)	12(10.91)	110(100.00)	35(27.13)	8( 6.20)	2( 1.55)	50(38.76)	15(11.63)	19(14.73)	129(100.00)	n.s
	겨울	9( 7.89)	3( 2.63)	3(2.63)	59(51.75)	21(18.42)	19(16.67)	114(100.00)	12( 8.76)	2( 1.46)	1( 0.73)	68(49.64)	26(18.98)	28(20.44)	137(100.00)	n.s

\* P< .05, n.s not significant

였으며, 부인은 하루 3번이 14.9%로 그 다음의 순이었다. 세수는 아침, 저녁으로 2번하며, 여자가 남자보다 자주 씻었다.

머리감기에서 남편은 하루 1번이 51.1, 1주 3번이 35.0%이었다. 부인은 1주 3번이 42.3%였으며, 다음이 하루 1번으로 39.2%였다. 머리감기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자주 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머리가 길고, 머리손질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발씻기는 남편의 경우 하루 1번이 64.2%, 하루 2번이 31.4%였다. 부인은 하루 1번이 60.8%, 하루 2번이 34.6%로, 남녀 모두 하루 1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하루 2번이었다.

샤워하기와 목욕하기는 여름과 겨울을 구별하여 물어보았는데, 겨울에는 여름보다 그 횟수가 적게 나타났다. 여름에는 목욕보다 샤워를 더 자주하였다. 남편의 경우 여름에는 샤워를 하루 1번이 6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하루 2번이 25.0%였다. 부인도 하루 1번이 61.4%로 가장 많았고, 하루 2번이 29.4%였다.

겨울에는 여름보다는 샤워를 덜 하였으며, 남편의 경우 하루 1번이 32.0%, 1주 3번이

23.4%, 1주 1번이 18.8%이었다. 부인은 하루 1번이 38.6%, 1주 3번이 29.7%, 1주 2번이 18.6%이었다. 샤워하기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자주하였다.

목욕하기는 여름에 남편의 경우 1주 1번이 37.3%, 하루 1번이 28.2%의 순이었고, 부인의 경우 1주 1번이 38.8%, 하루 1번이 27.1%로 남자, 여자 모두 1주 1번이 가장 많았고, 하루 1번이 그 다음의 순이었다. 여름에는 하루 1번이 많았던 반면, 겨울에는 1주 2번이나 3번이 많았다. 1주 1번이 남자는 51.8%, 여자는 49.6%로 가장 많았는데, 이를 겨울 1주 1번과 비교해 보면 그 비율이 증가하여, 겨울에 목욕을 더 자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름에는 샤워를 자주할 수 있어 목욕횟수가 줄어든 반면, 겨울에는 샤워보다는 목욕을 자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hi^2$ 검정결과 연령에 따라서는 위생행위 중 머리감기와 샤워하기(겨울), 목욕하기에 대해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표 4-13>과 같다. 머리감기는 20대와 40대의 경우 1주 3번이 각각 64.3%, 56.5%로 가장 많았으며, 30대와 50대의 경우 하루 1번이 각각 46.7%, 53.0%로 가장 많았다. 겨울에 샤워하기는 각 연령대마다 하루 1번이 가



<표 4-13> 연령에 따른 위생행위의 횟수에 대한  $\chi^2$ 검정

연령	횟수	20-29세						30-39세						계 (%)	
		하루			1주			하루			1주				
		1번 (%)	2번 (%)	3번 (%)	1번 (%)	2번 (%)	3번 (%)	1번 (%)	2번 (%)	3번 (%)	1번 (%)	2번 (%)	3번 (%)		
내용	세수하기	1(3.57)	20(71.43)	7(25.00)				28(100.00)	5(6.67)	64(85.33)	6(8.00)				75(100.00)
	머리감기	10(35.71)					18(64.29)	28(100.00)	35(46.67)	9(12.00)	1(1.33)		6(8.00)	24(32.00)	75(100.00)
	발씻기	19(57.86)	9(32.14)					28(100.00)	46(61.33)	24(32.00)	4(5.33)			1(1.33)	75(100.00)
샤워	여름	21(75.00)	5(17.86)	1(3.57)			1(3.57)	28(100.00)	48(64.00)	19(25.33)	1(1.33)	2(2.67)	2(2.67)	3(4.00)	75(100.00)
	겨울	12(42.86)		2(7.14)	3(10.71)	6(21.43)	5(17.86)	28(100.00)	24(34.29)	7(10.00)		14(20.00)	12(17.14)	13(18.57)	70(100.00)
목욕	여름	5(20.83)			14(58.33)		5(20.83)	24(100.00)	15(25.42)	2(3.39)		26(44.07)	11(18.64)	5(8.47)	59(100.00)
	겨울			2(8.00)	18(72.00)	3(12.00)	2(8.00)	25(100.00)	4(6.45)		1(1.61)	36(58.06)	12(19.35)	9(19.57)	62(100.00)

성별	횟수	40-49세						50세 이상						$\chi^2$		
		하루			1주			하루			1주					
		1번 (%)	2번 (%)	3번 (%)	1번 (%)	2번 (%)	3번 (%)	1번 (%)	2번 (%)	3번 (%)	1번 (%)	2번 (%)	3번 (%)			
내용	세수하기	4(4.65)	75(87.21)	7(8.14)				86(100.00)	3(3.00)	86(86.00)	10(10.00)	1(1.00)			100(100.00)	n.s
	머리감기	30(35.29)	1(1.18)			6(7.06)	48(56.49)	85(100.00)	53(53.00)	2(2.00)			7(7.00)	38(38.00)	100(100.00)	32.731**
	발씻기	50(58.82)	30(35.29)	2(2.35)		2(2.35)	1(1.18)	85(100.00)	64(64.00)	33(33.00)	3(3.00)				100(100.00)	n.s
샤워	여름	55(64.71)	21(24.71)	4(4.71)			5(5.88)	85(100.00)	61(61.62)	34(34.34)	2(2.02)	1(1.01)		1(1.01)	99(100.00)	n.s
	겨울	22(27.50)	3(3.75)	1(1.25)	6(7.50)	15(18.75)	33(41.25)	80(100.00)	38(40.43)	8(8.51)	2(2.13)	11(11.70)	13(13.83)	22(23.40)	94(100.00)	28.010*
목욕	여름	21(30.00)	7(10.00)	2(2.86)	20(28.57)	11(28.57)	9(12.86)	70(100.00)	25(29.07)	11(12.79)		31(12.97)	7(8.14)	12(13.95)	86(100.00)	25.398*
	겨울	6(8.11)	1(1.35)		32(43.24)	17(22.97)	18(24.32)	74(100.00)	11(12.36)	4(4.49)	1(1.12)	41(46.07)	15(16.85)	17(19.10)	89(100.00)	25.407*

\* P< .05, \*\* P< .01, n.s not significant

장 많았으나 20대가 42.9%, 50대가 40.4%, 30대가 34.3%, 40대가 27.5%로 나타났다. 겨울에 목욕하기는 각 연령대마다 1주 1번이 가장 많았으나 20대가 72.0%, 30대가 58.1%, 50대가 46.1%, 40대가 43.2%의 순이었다. 즉 20대가 가장 자주 샤워나 목욕을 하였으며, 40대가 가장 적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름에 목욕하기는 20대와 30대의 경우 1주 1번이 각각 58.3%, 44.1%로 가장 많았으며, 40대와 50대의 경우 하루 1번이 각각 30.0%, 29.1%로 가장 많았다. 여름에는 40대와 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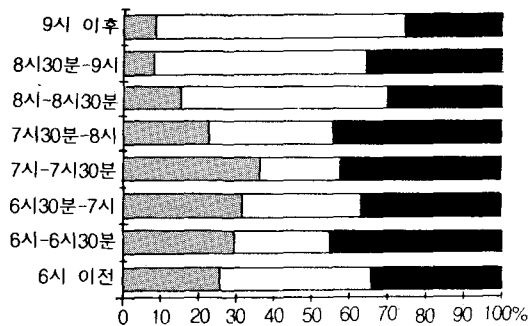
가 20대와 30대보다 더 자주 목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대와 30대가 여름에 목욕하기보다 샤워하기를 더 자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 위생행위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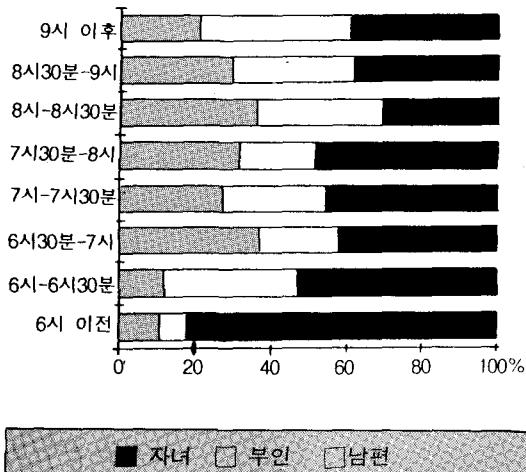
가족구성원 중 누가 어느 시간대에 주로 욕실을 사용하며, 그 시간대에 가족구성원들 간의 겹침정도가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구성원들이 위생행위(세수하기, 머리감기, 발씻기, 배변하기, 샤워하기, 목욕하기)를 하는 시간을 물었다. 욕실이 2개 이상인 경

우는 제외하였으며, 욕실이 1개인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sup>7)</sup>. 욕실공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오전과 오후시간으로 구분하여, 한가구의 가족구성원인 남편, 주부, 자녀들 각각에 대해 위생행위가 언제 일어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14>와 (그림 4-4), (그림 4-5)와 같다.

(그림 4-4) 오전시간의 가족구성원의 욕실사용



(그림 4-5) 오후시간의 가족구성원의 욕실사용



남편들이 위생행위를 하는 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오전 시간은 7시-7시 30분이 3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시 30분-7시로 27.0%, 6시-6시 30분이 23.5%였다. 오후시

<표 4-14> 시간에 따른 가족구성원들의 욕실사용

시 간	가족구성원			
	남 편 f(%) <sup>a</sup>	부 인 f(%) <sup>b</sup>	자녀들 f(%) <sup>c</sup>	
오전	6시 이전	9(10.5)	14(16.4)	12( 6.4)
	6시-6시30분	20(23.5)	17(20.0)	31(16.5)
	6시30분-7시	23(27.0)	23(27.0)	27(14.4)
	7시-7시30분	31(36.4)	18(11.7)	37(19.7)
	7시30분-8시	11(12.9)	16(18.8)	22(11.7)
	8시-8시30분	5( 5.8)	18(21.1)	10( 5.3)
	8시30분-9시	2( 3.3)	14(16.4)	9( 4.8)
	9시 이후	3( 3.5)	23(27.0)	9( 4.8)
	오후	6시 이전	3( 3.5)	2( 3.3)
6시-6시30분		2( 3.3)	6( 7.0)	9( 4.8)
6시30분-7시		7( 8.2)	4( 4.7)	8( 4.2)
7시-7시30분		6( 7.0)	6( 7.0)	10( 5.3)
7시30분-8시		11(12.9)	7( 8.2)	17( 9.0)
8시-8시30분		14(16.4)	13(15.2)	12( 6.4)
8시30분-9시		13(15.2)	14(16.4)	17( 9.0)
9시 이후		25(29.4)	47(55.2)	47(25.1)

a는 남편 총 84명에 대한 비율이며, b는 부인 총 85명, c는 자녀들 총 187명에 대한 비율임.

간은 9시 이후가 29.4%로 가장 많았고, 8시-8시 30분이 16.4%, 8시 30분-9시가 15.2%였다. 남편들의 욕실사용이 높은 시간을 살펴보면 오전시간은 6시부터 출근하기 전인 7시 30분-8시까지이며, 오후시간은 퇴근하여 집에 귀가한 7시 30분 이후의 시간이었다.

부인들은 남편과는 달리 오전시간 내내 꾸준히 욕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욕실사용이 가장 높은 시간은 6시 30분-7시와 9시 이후인데, 이는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와 주부들의 차이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부들은 9시 이후 가족들이 모두 출근하거나 등교한 후 욕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후시간에는 8시 이후부터 욕실사용이 증가하는데, 이는 취침 전 간단한 위생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오전시간 남편들의 경우보다 다소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욕실을 사용하는

7)욕실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중복응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1개인 경우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것을 알 수 있으나 학교등교시간 이후는 욕실사용이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후시간은 9시 이후가 25.1%, 6시 이전이 12.2%의 순인데, 이는 하교후 6시 이전에 간단한 위생행위를 마친후 취침전 다시 위생행위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각 시간대에 가족구성원들 간의 겹침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욕실이 1개인 전체 85가구 중에서 일정 시간대에 욕실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를 욕실사용자수, 그리고 그 사람들 중 가족구성원과 사용시간이 겹치는 경우의 수를 중복되는 횟수로 하여 그 시간대의 중복율(%)을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5>와 (그림 4-6), (그림 4-7)과 같다.

<표 4-15> 욕실 사용의 중복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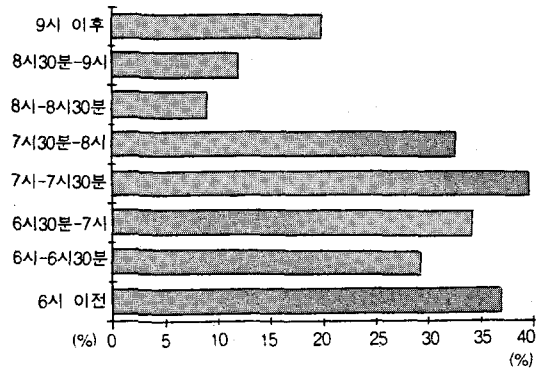
시 간	욕실사용자수	중복되는 횟수	중복율(%)		
오전시간	6시 이전	35	13	37.1	
	6시-6시30분	68	20	29.4	
	6시30분-7시	73	25	34.2	
	7시-7시30분	86	34	39.5	
	7시30분-8시	49	16	32.6	
평균 중복율 26.9%	8시-8시30분	33	3	9.0	
	8시30분-9시	25	3	12.0	
	9시 이후	35	7	20.0	
	오후시간	6시 이전	28	11	39.2
		6시-6시30분	17	5	29.4
6시30분-7시		19	2	10.5	
7시-7시30분		22	5	22.7	
7시30분-8시		35	11	31.4	
평균 중복율 34.6%	8시-8시30분	39	15	38.4	
	8시30분-9시	44	16	36.3	
	9시 이후	119	82	68.9	

· 중복율=중복되는 횟수/욕실사용자수×100

· — 가장 중복율이 높은 시간대

오전시간 중 가장 중복율이 높은 시간은 7시-7시 30분으로 중복율 39.5%였다(그림 4-6). 그 다음으로 6시 이전이 37.1%, 6시 30분-7시가 34.2%, 7시 30분-8시가 32.6%의 순이었다. 이는 남편과 자녀들의 욕실사용이 가장 많은 시간대이기도 하다. 6시부터 8시까지 약 30%정도의 중복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가족구성원들이 직장이나 학교를 가기 전 세수하기, 머리감기, 배변하기, 샤워하기 등 위생행위를 하면서 욕실을 함께 사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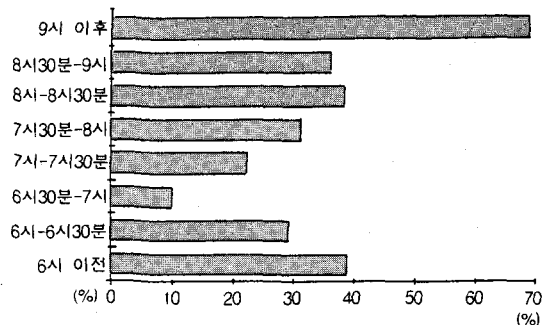
(그림 4-6) 오전시간의 욕실사용 중복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오후시간 중 가장 중복율이 높은 시간은 9시 이후로 중복율이 68.9%였다(그림 4-7). 그 다음으로 6시이전이 39.2%, 8시-8시 30분이 38.4%, 8시 30분-9시가 36.3%, 7시 30분-8시가 31.42%의 순이었다. 6시 30분-7시 30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시간에 중복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학교에서 귀가한 자녀들이 주로 6시 30분 이전에 욕실을 사용하며,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들이 7시 30분 이후에 욕실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9시 이후에 중복율이 68.9%나 되는 것은 취침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단한 샤워나 목욕 등 위생행위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오전시간의 평균 중복율은 26.85%, 오후시간이 평균 중복율은 34.60%로

(그림 4-7) 오후시간의 욕실사용 중복율



오전보다는 오후에 중복율이 더 높았으며, 욕실사용시간의 겹침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합등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부부전용욕실에서 행하는 위생행위

조사대상가구중 부부전용욕실이 있는 가구의 거주자 142명을 대상으로 부부전용욕실에서 행하는 위생행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16>과 같다. 손씻기가 남편 90.1%, 부인 92.9%였으며, 그외 세수하기, 발씻기, 배변하기, 샤워하기 등 목욕하기를 제외한 모든 위생행위가 80%이상을 나타냈다. 목욕하기는 남편이 40.8%, 부인이 45.0%로 다른 위생행위만큼 부부전용욕실에서 자주 행하여 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부전용욕실은 욕조의 설치보다는 간단한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16> 부부전용욕실에서의 위생행위

행위	남편		부인	
	f	% <sup>a</sup>	f	% <sup>b</sup>
세수하기	62	87.3	64	90.1
머리감기	57	80.2	56	78.8
손씻기	64	90.1	66	92.9
발씻기	62	87.3	60	84.5
배변	61	85.9	61	85.9
샤워하기	58	81.6	59	83.0
목욕하기	29	40.8	32	45.0

중복응답함.

a는 남편 총 71명, b는 부인 총 71명에 대한 비율임.

(5) 옷을 놓아두는 장소

목욕시 옷을 벗어 이를 놓아두는 장소를 물어 본 결과는 <표 4-17>과 같다. 속옷과 겹옷을 놓아두는 장소가 서로 달랐는데, 속옷은 타올걸이가 63.2%, 욕실문 바깥 바닥이 37.1%, 타올걸이 26.5%로, 목욕하기 전 벗은 옷을 대부분 타올걸이와 욕실문 바깥바닥에

두고 있었다. 겹옷은 밖에 벗어놓고, 속옷은 안에서 벗어 타올걸이에 걸어 놓는 것으로 생각된다. 옷을 밖에 벗어놓는 것은 번거로울뿐 아니라 외관상 좋지 않으며, 욕실내 타올걸이에 걸어둔 옷도 옷에 습기가 차고 물이 튀어 젖을 수 있고, 타올걸이가 적어 옷을 제대로 걸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옷을 놓아두거나 옷을 보관할 장소, 탈의 공간등이 계획되어야 한다.

<표 4-17> 옷을 놓아두는 장소 N=155

행위	속 옷		겹 옷	
	f	%	f	%
변기위에	5	3.2	4	2.6
타올걸이에	96	63.2	40	26.5
욕실안쪽 문고리에	10	6.5	8	5.3
욕실문 바깥 바닥에	21	13.5	56	37.1
인접한 방에	7	4.5	29	19.2
욕실 바깥쪽 문고리에	0	0.0	3	2.0
욕실내 라지에터 위에	14	9.0	11	7.3
계	155	100.0	151	100.0

옷을 두는 장소를  $\chi^2$ 검정해 본 결과 거주자 특성 중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났다. 그 결과는 <표 4-18>과 같다. 모든 연령대에서 타올걸이에 속옷을 놓아두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20대에서는 욕실내 라지에터 위에, 30대에서는 욕실안쪽 문고리나 욕실문 바깥 바닥에, 40대에서는 욕실문 바깥 바닥에도 놓아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인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속옷을 욕실내, 즉 타올걸이나 욕실내 라지에터 위에 벗어놓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타 연령대에 비해 옷을 벗고 욕실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어, 생활의 편리함과 외관상등을 고려하여 욕실내 적절한 탈의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사대상가구에 탈의공간의 필요성을 물어 본 결과는 <표 4-19>와 같다. 별도의 탈의

**분석자료**

공간을 원한다(8.5%)기 보다는 욕실공간내에 탈의공간(17.0%)이나 옷보관 장소(30.7%)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탈의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28.8%나 되었다. 충분한 공간확보가 어려운 현 아파트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별도의 탈의공간을 계획하기보다는 옷을 보관하는 장소를 마련하

**<표 4-18> 연령에 따라 속옷 놓아두는 장소의  $\chi^2$ 검정**

내용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f(%)	f(%)	f(%)	f(%)
변기위에		1( 4.55)	0( 0.00)	2( 3.70)	2( 4.87)
타올걸이에		13( 59.09)	22( 59.46)	33( 61.11)	29( 70.73)
욕실안쪽 문고리에		0( 0.00)	5( 13.51)	2( 3.70)	3( 7.32)
욕실문 바깥 바닥에		2( 9.09)	5( 13.51)	11( 20.37)	3( 7.32)
인접한 방에		0( 0.00)	3( 8.11)	4( 7.41)	0( 0.00)
욕실 바깥쪽 문고리에		0( 0.00)	0( 0.00)	0( 0.00)	0( 0.00)
욕실내 라지어터 위에		6( 27.27)	2( 5.41)	2( 3.70)	4( 9.76)
계		22(100.00)	37(100.00)	61(100.00)	41(100.00)
$\chi^2$		25.656*			

\*P<.05

**<표 4-19> 탈의 공간의 필요성** M=155

내용	f	%
별도의 탈의 공간이 필요하다.	13	8.5
지금의 욕실공간에 탈의 공간이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	26	17.0
세면실등을 분리하여 탈의공간을 계획하였으면 좋겠다.	7	4.6
지금의 욕실공간에 탈의한 옷을 보관할 장소만 있으면 된다.	47	30.7
현재의 면적으로는 탈의공간확보가 불가능하다.	44	28.8
현재 상태에 만족하다.	16	10.5
계	153	100.0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 빨래할 옷을 넣어두는 광주리 같은 햄퍼(hamper)를 욕실내외에 놓아두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거주자 특성에 따른 욕실공간내 위생행위에 대한 결과인 <가설 1-2>를 요약하면 가족 특성 중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며, 옷 놓아두는 장소는

**<표 4-20> 거주자 특성과 욕실공간내의 위생행위의  $\chi^2$ 검정 요약표**

거주자 특성	가족수	욕실공간내의 위생행위					
		위생행위의 방식	위생행위의 횟수	위생행위의 시간	무부선용욕실 위생행위	못벗어두는 장소	
가족특성	성별	n.s	n.s	n.s	n.s	n.s	
		-머리감기 10.270*	-세수하기 8.359*	n.s	n.s	n.s	
연령	연령	-발씻기 12.442*	-머리감기 11.976*	n.s	n.s	25.656*	
		-배변하기 40.656***	-샤워(겨울) 12.982*	n.s	n.s		
		-목욕하기	-머리감기 21.782*	-머리감기 32.731**	n.s	n.s	
			-샤워(겨울) 28.010*	-목욕(여름) 25.398*	n.s	n.s	
				-목욕(겨울) 25.407*	n.s	n.s	
					n.s	n.s	
주거특성	분양면적	n.s	n.s	n.s	n.s	n.s	
	건축년도	n.s	n.s	n.s	n.s	n.s	

\* P<.05, P<.01, \*\*\* P<.001, n.s not significant

거주자 특성 중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1-2>는 부분적으로 긍정된다.  $\chi^2$ 검정결과를 요약하면 <표 4-20>과 같다. 성별에 따른 위생행위의 방식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구부리고 앉아서 하거나 대야를 이용하는 행위를 많이 하였으며, 세수하기, 샤워하기, 목욕하기와 같은 위생행위의 횟수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자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욕조밖에서 머리를 감거나 대야를 이용하는 행위가 많았다. 위생행위의 횟수는 20대가 타 연령에 비해 자주 샤워나 목욕을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